

보도시점 2026. 9.21. (월) 14:00 배포 2026. 9.21. (월) 13:00

서해 3천톤급 해경 경비함정 2030년까지 17척으로 확충한다.

- '27년 예산안에 신규 3척(총사업비 3,660억원) 건조 착수비 512억원 지원
- 불법 외국어선 대응 및 해양안전 역량 강화

기획예산처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9.21.(월)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천해경 전용부두 및 영종도 하늘바다파출소를 방문하여 '27년 해양경찰 예산안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 현장방문 개요 >

- 일 자: '26.9.21.(월) 10:00~15:00
- 참석자: (기획예산처)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국민안전예산과장 등
(해양경찰청) 임명길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등
- 장소 및 주요내용
 - 서해5도특별경비단: 불법 외국어선 대응체계 점검
 - 인천해경 전용부두: 3천톤급 경비함정 운용 현장 점검
 - 하늘바다파출소: 연안순찰 드론 기동 현장 및 안전장비 점검

먼저, 서해5도특별경비단 종합상황실에서 서해 NLL 인근 불법 외국어선 대응 현황과 해양경비 활동 상황을 확인하고,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는 3천톤급 경비함정 등 주요 경비전력 운용 현장과 장비를 점검하였다.

정부는 서해 광역해역 및 경계미확정해역 등 주요 해역의 경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서해 3천톤급 경비함정을 종전 11척에서 '30년까지 17척으로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 ('25년까지) 11척 → ('26.2) +1척 → ('26.10) +1척 → ('27.下) +1척 → ('27~'30년) +3척

그간 3천톤급 경비함정은 노후함정 대체 중심으로 확보해 왔으나, 이번 사업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서해 주요 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광역 경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력 증강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27년 예산 안에는 기존 건조 중인 1척의 마무리 소요 439억원과 신규 3척 건조 착수 소요 512억원(총사업비 3,660억원)을 반영하였다.

※ 3천톤급 경비함정: 서해 광역해역·경계미획정해역 등에서 장거리·장기 경비와 해양 주권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대형 경비전력**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추적·차단 및 현장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500톤급 단속전담함정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26년 건조에 착수하는 2척에 이어 '27년 예산안에는 추가 2척 건조 착수 소요 90억원(총 사업비 900억원)을 반영하였다.

※ 500톤급 단속전담함정: NLL 인근 등 불법 외국어선 단속 수요 해역에서 추적·차단 및 현장 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 중심 단속전력**

아울러 불법 외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등선·제압·나포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진압복·방검부력조끼 등 개인 보호장비 확충(14→25억원)과 특공대 훈련시설 환경개선(21억원)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사업도 함께 반영하였다. 연안안전 분야에서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27년 연안순찰 드론 22대를 우선 보급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바탕으로 '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7년 해양경찰 예산안은 서해 경비전력 확충, 불법 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 연안안전 대응체계 보강 등 국민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 반영하여 '26년 2조 885억원 대비 1,406억원(6.7%) 증가한 2조 2,29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한 우리 바다'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국민안전예산과	책임자	과 장	김영웅 (044-214-2970)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dong3847@korea.kr)

□ 서해 3천톤급 경비함정 운용 모습



* 서해 광역해역 경비 및 해양주권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3천톤급 경비함정

□ 주요 제원

구분	내용
길이 × 폭	122.25m × 15m
배수량	약 3,840톤
최대속력	24노트(시속 약 44km)
항속거리	6,000해리
승조원	85명
주요 임무	서해 광역해역 경비, 해양주권 수호, 불법 외국어선 대응
주요 장비	40mm·20mm 함포, 소화포, 헬기 이착륙 시설 등